

모든 아이들을 위한
시흥 **누구나** 성폭력 예방교육

시흥 중학생에게 보내는
성희롱·성폭력 예방 메신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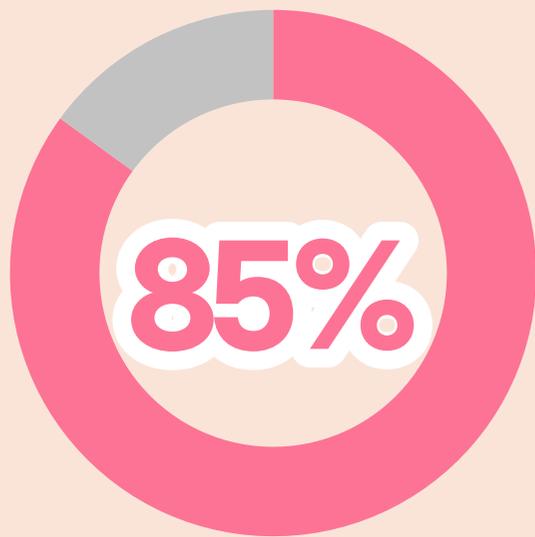
**"SNS, 메신저 속
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"**



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
시흥 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

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SNS, 메신저(페이스북, 카카오톡 인스타그램, 틱톡)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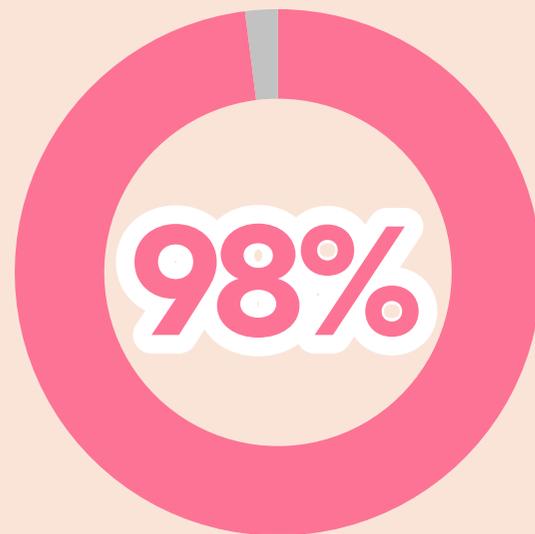
최근 1년간 중학생
'SNS' 이용률



이 중 '거의 매일' 이용한다

64%

최근 1년간 중학생
'메신저'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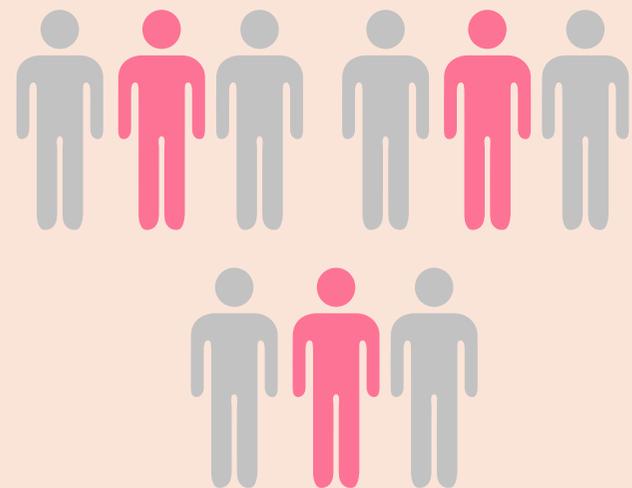


이 중 '거의 매일' 이용한다

90%

여러분의 SNS는 공개 계정인가요?
팔로워 중 잘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?
낯선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아 본 적은요?

" 서울 청소년 3명중 1명 " 인터넷서 낯선 연락



「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」, 서울시, 탁틴내일, 2020. 12. 14.
"[앵커리포트] 청소년 3명 중 1명 인터넷서 낯선 연락", <YTN>, 2020. 12. 14.

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, 본인 팔로우 안한 미성년자에게 DM 못 보낸다!

청소년이 청소년 유인 의심 계정과 DM을 주고받을 때 경고 알림 기능
10대가 가입할 때 계정 공개 범위 설정 안내 메시지



틱톡, 만 16세 미만에게는 친구만 댓글 가능 "영상 다운로드 금지"

청소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·안전 정책 강화, 계정 기본 설정 비공개

**중학생에게 날아오는 수 많은 메시지들.
SNS 플랫폼에서도 제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
왜 이런 제한을 하게 된 걸까요?**

"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, 본인 팔로우 안한 미성년자에게 DM 못 보낸다!", <경향신문>, 2021.3.17.

"틱톡, 만 16세 미만에게는 친구만 댓글 가능... '영상 다운로드 금지'", <서울경제>, 2021.1.14.



가출팸 나쁜 오빠들의 수법

SNS, 채팅앱에서 "드라이브 하자"는 사람 조심해라

청소년 술·담배 대신 사다주는 '델구' 기승 성범죄 위험까지

SNS 속 '델구' 직거래하며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

'만나고싶다' 메신저에 가출소녀가 처음 만나 끌려간 곳은 숙박업소

SNS로 접근해 가출 청소년이 갈 곳 없는 점을 노려 범행

"위기의 가출 청소년 <상> 가출팸 나쁜 오빠들의 수법", <국제신문>, 2020.11.07.
"담배 대신 사주겠다"던 그들, "몇살?" "여자야?" 뷰터 물었다", <머니투데이>, 2020.11.04.
"만나고싶다' 메신저에 가출소녀가 처음 만나 끌려간 곳은 숙박업소", <아시아경제>, 2020.11.03.

**고민 들어주는 척...
SNS에서 만난 어른이 성범죄자 돌변**

**채팅서 1인 2역 행세...
10대 여성 성폭행하고 동영상 협박**
SNS 채팅 앱에서 본인 계정 외에 또 다른 계정 개설해 채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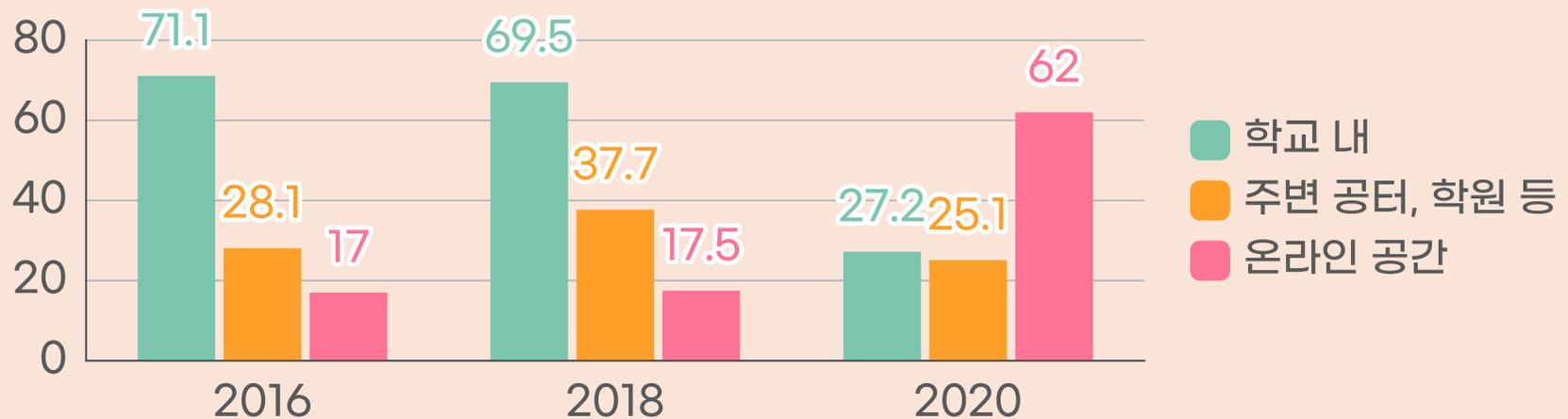
SNS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
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, 영상 촬영한 대학생 실형 선고

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만난 공무원
SNS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 혐의

"고민 들어주는 척... SNS에서 만난 어른이 성범죄자 돌변", <서울신문>, 2021. 06.06.
"채팅서 1인 2역 행세... 10대 여성 성폭행하고 동영상 협박", <조선일보>, 2021.01.05.
"SNS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소방관 입건... 해임 처분", <중앙일보>, 2021.03.15.
"SNS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, 영상 유포한 20代 징역 2년 6월", <문화일보>, 2020.08.21.

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장소

(중학생의 답변, 중복 응답 허용)



**'학교 내'에서의 피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,
'온라인 공간'에서의 피해율은 증가!**

성폭력 가해자의 유형 중
"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" 피해 응답률 증가



「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」, 여성가족부, 2020. 12. 30.

SNS, 온라인 메신저 기억하고 지켜주세요!

익명성과 비대면이 장점인 SNS, 온라인 메신저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
성희롱, 성폭력이 다가올 수 없도록 안전하게 이용해요!

1 SNS 게시물은 전체공개가 아닌
비공개 또는 친구공개

2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 요청
메시지에는 경계!

3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
직접 만나는 건 위험!



아.청.법 개정으로

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. 9. 24. 시행)

SNS, 메신저 속 성희롱·성폭력 처벌 대상 범위 확대

개정 전

아동·청소년의 '성 구매'를 목적으로 하는
유인·권유만 처벌 가능

개정 후

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
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·반복적으로 하거나
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
참여시키는 행위도 처벌 가능

만약친구의 성희롱,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?
성희롱, 성폭력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?

도움 줄 수 있는 지지자 찾기 전문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받기

경찰 **112**

학교전담 경찰 **117**

여성긴급전화 **1366**

청소년 상담 **1388**

경기 서부(안산) 해바라기센터 **031) 816-1374**

시흥 여성의 전화 **031) 496-9390**



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
시흥 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